

K / D A 특별판

SHARP



K/DA, “THE
BADDEST”로
컴백!

퀴즈:
나의 K/DA
덕력은?

세라핀 인터뷰:
떠오르는 신성의
고백



K/DA: 예술의 혁명

04

패션: 야스오와
인스턴트 스타일

12

10

세라핀: 떠오르는
신성의 고백

14

퀴즈: 나의 K/DA
덕력은?

의욕 총만 K/DA, 드디어 컴백

2년 전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파이널에서 POP/STARS를 열창하며 문학경기장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K/DA.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더욱 야심찬 모습으로, 새로운 사운드와 새로운 스타일로, 그리고 팝의 역사에 또다시 한 획을 그을 EP를 들고. 이번 SHARP 특별판은 K/DA의 화려한 컴백을 기념하여 온전히 K/DA의 정보로만 꾸몄습니다. 물론 이번에 함께 작업한 신예 스타 세라핀의 이야기도 담았고요. 14쪽에는 문제를 풀면서 팬심을 증명할 수 있는 퀴즈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벽을 장식할, 아주 특별한 K/DA 포스터까지! 마음껏 즐겨주세요. 음악이여 영원하라!

K/DA

예술의 혁명

POP/STARS로 세계를 열광시켰던 K/DA가 2년의 공백을 깨고 드디어 컴백했습니다. 음악인으로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멤버들과 더욱 새로워진 사운드와 패션, K/DA의 역사와 의미, 새로운 싱글 "THE BADDEST"를 발표하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첫 번째 정식 EP에 대한 소식을 멤버들이 직접 들려줍니다.

K/DA 스튜디오에서 K/DA를 기다린다는 것은 강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둡고 별다른 장식이 없는 실내를 각종 녹음 장비와 스크린이 내뿜는 은은하고 따스한 빛이 채우고 있습니다. 벽에는 오려낸 신문 기사를 담은 액자 하나와 기념 사진 몇 장만이 걸려 있을 뿐, K/DA의 폭발적인 성공과 급속도로 치솟은 인기를 실감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딘지 초현실적인 분위기에 푹 젖어 있는데, 녹음 장비들이 내는 웅웅 소리를 비집고 힘이 바닥에 부딪치는 리드미컬한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눈앞이 아찔할 정도로 매력적인 K/DA 멤버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아리를 필두로 자리에 앉은 모습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것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직전이라기보다는 일류 패션쇼의 맨 앞자리에 착석한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멤버들이 터뜨리는 웃음과 따스한 표정은 그 어떤 장벽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K/DA가 이 위치에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에, 아리가 미소를 지으며 신인 가수였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굳어져버린 모던 팝의 공식과 여러 레이블의 이런저런 요구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길을 찾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솔로 가수로서 성공했음에도 레이블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저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표현하는 사운드가 그룹의 사운드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탐색했죠."



아리

K/DA를 결성한 리더이자 메인 보컬인 아리는 자신감에 찬 매력으로 무대를 빛내는 존재입니다. 차분한 태도로 그룹의 중심을 잡아주고, 진정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멤버들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합니다. 숨은 보석 같은 신인을 찾아내어 그 재능을 활짝 꽃피우게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카이사

카이사는 K/DA의 메인 댄서이자 팀의 안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조용하지만 열정적인 성격으로 K/DA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감을 얻습니다.

THE BADDEST 가사

Baddest do what the baddest do
The baddest do we the baddest ooh
Baddest do what the baddest do
The baddest do we the baddest

Coming at you live
Real real wild
Here to light it up
Set the world on fire
Gonna break rules
And hearts in twos
Cause that's what the baddest do

Never going back
Nah not that
Diamonds on drip
Cause I came to make a splash
Gonna break rules
And hearts in twos
Cause that's what the baddest do

I spit heat, I melt your face off
Disappear, I'm your eraser
In the cut just like a razor
Murder business, where my blazer?

I got all the boys on me
I got all the lines on ring
Knock 'em dead, turnin' heads
I got all the eyes on me
Pretty face 걸어들어와
유행 선두자
원하지만 못하잖아
애가 타잖아
You like "whoa" KALI you the goat
난 알지 I know
준비해 cause I like to ball
멈추지 않아
나는 lit 크게 like a bit

아칼리

K/DA의 메인 래퍼인 아칼리는 스트리트 펑크 스타일에 과감하면서 위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다른 멤버들이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칼리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그 누구의 간섭도 없는 창작 활동입니다. 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고심하고 있으며 음악을 만들 때는 타협을 모릅니다.



그거 말고 byte
믿어봐 큰 만큼 크게
어깨 펴고 high
백 퍼센트
덤비지 못해
죽여주잖아
나는 boss 간지 with the sauce
원하면 줄게

I'm doing damage
Went just how I planned it
I do what I want when I say
모두 날 따라 해
난 끝내주잖아
(Like) to live on the edge of insane

(It's crazy)
Sorry for the bad news, sorry I'm so bad
Only took a minute for me to get what you had
Sorry for the bad news, know it makes you sad
I'll be here for a minute baby you should pack your bags

Way that I look should be breaking the law
If I don't got it I take what I want
My circle small like a round of applause
You know that I love the sound of applause
You know I mean everything that I say
When you see me coming get out of the way
I came to slay I came to slay
back and I'm better and ready to stay

(It's crazy)
Sorry not sorry for being the best
언제든지 내가 좀 해
Look at the gold all on my chest
Look at the gold call it a flex

POP/STARS가 ITUNES와 BILLBOARD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K/DA의 인기는 끝도 없이 치솟았습니다

이때 이블린이 입을 열어 원래 K/DA라는 그룹의 시작은 두 사람의 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와 저는 그전부터 친하긴 했지만, 아리가 저한테 새 그룹을 결성하자고 했을 땐 놀랐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음악 취향이 아주…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리는 첫 번째 레이블에서 만들었던 단순하고 발랄한 사운드가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하겠다고 했어요. 좀더 톡 쏘는 맛이 있는.” 이블린은 알송달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그 말에 넘어가 버렸죠.”

1막: 역동적인 2인조에서 완성형 밴드까지

그때부터 이블린과 아리는 둘만의 2인조가 아니라 멤버를 추가하여 결속력이 강한 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댄서를 찾던 아리의 눈에 카이사가 들어왔고요. 아리는 카이사가 자신의 댄스 스튜디오를 홍보하려고 찍은 동영상과 보고 만국에 통하는 언어와도 같은 카이사의 스타일과 다양성에 매혹되어 버렸습니다. 카이사는 춤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으로 무대를 장악할 뿐 아니라, 그룹의 안무를 도맡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와 이블린은 아칼리를 발견했고, 아티스트로서 그녀의 재능과 진정성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작사가로서, 래퍼로서, 프로듀서로서, 아칼리는 이블린과 아리가 원하는 그룹을 완성시켜 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네 명의 아티스트의 노력은 2018년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아직도 팬들의 뇌리에 아로새겨진 싱클, POP/STARS를 발표하면서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린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K/DA는 현장의 수많은 관중과 온라인에 접속한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올라 화려한 데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POP/STARS가 iTunes와 Billboard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K/DA의 인기는 끝도 없이 치솟았습니다. 이 노래는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억 7천만번 넘게 재생되었고, YouTube에 올린 공식 영상은 2020년 현재 조회수 3억 6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 공식 영상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이블린이 전속력으로 차를 몰아 카이사에게 돌진하고, 카이사가 마지막에 간발의 차이로 피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카이사는 아련한 표정으로 그 부분을 촬영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스릴 넘치게 찍었어요. 그 커스텀 카드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난 촬영 끝나고 한 대 샀어.” 이블린이 불쑥 덧붙였습니다.

2막: 성공의 대가

하지만 성공한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POP/STARS의 대히트가 불러온 명성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물론 명성은 K/DA 멤버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하며 달려온 목표이기는 했으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인기와 팬들은 멤버들 전원이 음악에서 잠시 멀어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해변에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휴식을 즐겼고, 차츰 K/DA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전 우리 그룹의 노래가 전 세계의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면 좋겠어요. 구속과 제약이 심한 사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전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고통을 잘 아니까요. 누구든지 날개를 마음껏 펼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카이사르는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양한 댄스 스타일의 멘토들을 새로이 만나고, 그룹에 복귀할 때 가져올 참신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한편, 자신의 댄스 스튜디오에서 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제 댄스 기교를 가다듬고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어요. 어딜 가든 댄스와 몸동작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춤을 이해하는 다른 관점을 깨닫고, 제 스타일을 발전시키고... 그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걸 스튜디오에 돌아와서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아칼리가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프로젝트 그룹 True Damage를 결성해서 활동했으니까요. 돌파구를 찾는 아티스트들을 모아 언더그라운드에서 시작했죠. 아칼리는 이 프로젝트 그룹을 이끌면서 창의력을 마음껏 발산했고 재능과 그룹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마치 K/DA의 아리처럼

말이죠. “언더그라운드는 그 익명성이 좋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춤추고 랩하고 노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죠.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 무대에서 True Damage 멤버들과 제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공연을 하는 거, 정말로 좋았어요. True Damage는 제가 원래 속했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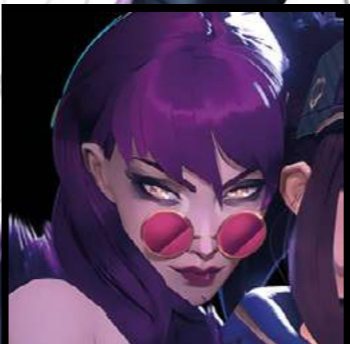
3막: 새로운 시대

하지만 이제 숙녀들이 다시 모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 내놓은 싱글 THE BADDEST는 발매하자마자 각종 차트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했죠. 사람들은 EP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몇 달 동안 K/DA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카이사르가 설명했죠. “POP/STARS는 우리 모두의 재능을 한데 모아 연금술로 빚어낸 듯한 노래예요. 하지만 이번 EP는 우리 각자가 한 곡씩 맡아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각자의 목소리가 많이 담기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K/DA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칼리의 말을 들어볼까요? “이제 우린 K/DA의 두 번째 시기에 들어선 거예요. 앞으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과 더 많이 협력하고, 그런 작업을 통해 우리 자신의 창의성도 한 차원 높아지겠죠. 전 K/DA에서 배운 건 물론이고 True Damage에서 알게 된 것도 제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신인이든 베테랑이든 같이 음악 작업도 계속하고 싶고요.”

계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건 K/DA의 사운드만이 아닙니다. 아리는 이번 활동에서 선보일 의상에 대해서 힌트를 줄 듯 말 듯 애를 태웠죠. “우리 멤버들은 어디에서나 영감을 얻고, 우아함과 취약함이라는 이원성을 포착하려고 애썼어요. 전 그 결과에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



이블린
아리와 함께 K/DA를 결성하고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이블린은 무대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보는 이를 최면에 몰아넣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한 번도 그늘에 머무른 적이 없고, 정교하게 만들어낸 자신의 이미지에 대중이 보이는 반응을 즐깁니다. 그룹 멤버들이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몰아가는 힘을 지녔습니다.



K/DA의 역사

2016년 9월
아리, 이블린과 만나 독특한 목소리와 개성 강한 재능을 추구하는 그룹을 결성할 것을 제의. 당시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음.

2018년 11월
POP/STARS, 발매되자마자 대히트를 기록, K/DA,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데뷔 라이브 공연을 펼침.

2020년 8월
K/DA, EP 발매에 앞서 싱글 “THE BADDEST”를 선공개하며 활동 재개를 알림.

2013년 8월
아리, 팝 샐인 어워즈에서 “가장 재능 있는 신인 케이팝 아티스트”로 선정되며 케이팝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



2017년 6월
아리, 카이사르가 댄스 스튜디오 홍보용으로 만든 동영상을 발견. 카이사르, 그룹에 합류.

2017년 10월
아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나이 어린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약하던 아칼리를 알게 됨. 이블린과 함께 아칼리의 공연을 찾아가서 보기도 함. 아칼리, 아리의 권유로 K/DA에 합류.



2020년 1월
K/DA, 에너지와 영감을 충전하고 본격적으로 EP 작업 시작.

2020년 8월
온라인에 올라온 세라핀의 노래에 팬들이 K/DA 태그를 붙여 공유하고, 이블린이 이 동영상을 보게 됨. K/DA, 발매 예정 EP의 수록곡 작업에 세라핀을 초청.





세라핀: 떠오르는 신성

K/DA의 새 EP에 참여한 깜짝 게스트 세라핀은 젊은 인디 아티스트로, POP/STARS를 부르는 동영상 입소문을 타면서 자신의 우상이었던 K/DA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장된 이 사랑스럽고 낙관적인 소녀를 저희가 만나보았습니다.



세라핀의 장난기 어린 어투와 매력적인 미소에는 주변 사람들도 즐겁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기쁨이 묻어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저를 알아봐 주다니, 제 꿈이 실현된 거죠. 아니, 사실은 아직도 꿈만 같아요! 처음에 일이 시작된 것도 진짜 제 침대 옆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스튜디오 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 언니들과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이지 현실 같지가 않아요!” 작사에서 프로듀스까지 다재다능한 뮤지션인 세라핀은 집에서 녹음한 커버곡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반주라고는 어쿠스틱 기타 한 대뿐이었지만, 감미로운 목소리는 이미 수천 명의 팬을 매혹시켰죠.

그런데 세계적 명성의 그룹이 세라핀을 주목한 건 어떤 계기였을까요? 아리의 말입니다. “우린 항상 재능 있는 신인 아티스트를 찾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인디 아티스트들도 열심히 찾아 보죠. 하지만 세라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건 우리 팬분들이에요. 세라핀이 부른 POP/STARS를 듣는 순간 넋을 잃었어요. 그 독특한 목소리, 사운드, 감각이 K/DA에 새로운 느낌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음악을 하게 된 동기와 어떤 과정을 거쳐 곡을 완성하느냐고 묻자, 세라핀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음악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창의력을 자극하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제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바뀌면 제 음악도 바뀌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기도 하고요!”

친구와 가족은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세라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제가 엄청 기뻐하고 흥분해 있으니까 같이 기뻐해 주시죠. 부모님은 항상 제 꿈을 믿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음악을 직업으로 택하는 것 자체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세상 부모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요. 친구들은 다들 너무 착하고 좋아요! 제가 너무 들떠서 일을 망치지 않도록 진정시켜 줍니다.”

"음악은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세라핀은 인터뷰 내내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성숙한 현실 감각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K/DA 음악 작업에 참여하니, 정말 믿어지지 않죠. 너무나 소중한 기회고요. 조바심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해요. 그저 순간순간을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세라핀의 꿈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겠죠. “이번 작업이 끝난 후에도 제 목소리와 제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더 넓은 무대에 설 수 있겠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라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표현을 골랐습니다. “...저는 노래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말은 너무나 감성에 치우친 느낌이지요. 제가 너무 낙천적이거나 순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어떤 벽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제가 세상에 내보내는 노래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세라핀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에 의하면 ‘어느 때 같은 일상’에서 차곡차곡 꾸준히 노력을 쌓아온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현실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젊은 아티스트가 꽃피울 수 있는 재능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인스턴트 스타일

유명 프로듀서 야스오와 AAPE BY *A BATHING APE®가 AAPE BY *A BATHING APE® X LEAGUE OF LEGENDS라는 이름으로 콜라보 의류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리트웨어로 유명한 AAPE BY *A BATHING APE®의 브랜드 시그니처 스타일과 로고를 많이 반영한 모습입니다.

AAPE BY *A BATHING APE® X LEAGUE OF LEGENDS는 유니섹스 느낌이 충만합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선 패션과 미적 감각을 자랑하는 야스오의 팬들이라면 만족하실 겁니다. 아우터웨어 재킷, 티셔츠, 풀오버 후드, 카고 바지, 스니커즈, 여기에 모자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AAPE BY *A BATHING APE® X LEAGUE OF LEGENDS를! 현재 AAPE.jp과, 전 세계 특별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슬링백

스마트폰, 지갑, 열쇠, 여름엔 선글라스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은 당신. 편리하고 실용적인 이 소형 금빛 백이면 고민 끝. 언제 어디서나 내 귀중한 소지품을 심장 가까이 둘 수 있다.



윈드브레이커

고급스러운 광택이 돋보이는 골드 컬러로 자신감 뽐냄. 스타일리시한 데다 따스하기까지. 가슴 포켓에 새겨진 AAPE BY *A BATHING APE®의 시그니처 로고까지도 완벽하다.



카고 바지

편안하고 가벼워서 사시사철 어떤 날씨에도 입을 수 있는 조거 팬츠. 적당히 들어간 골드 문양이 포인트다. 번잡한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도, 스튜디오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나만의 존재감을 빛내기에 딱 좋은 아이템.



슈즈

자칫 지나치게 화려해 보이는 골드 컬러를 살짝 눌러주는, 황토빛 부드러운 색조의 두툼한 스니커즈. 도시의 보도블록에서도 스포츠 필드에서도 스타일과 실용성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당신을 위한 아이템.



퀴즈

나의 K/DA 덕력은?

**실력을 발휘해 보세요!
K/DA 최강의 팬임을
입증할 시간입니다!**

1. 처음은 쉬운 문제로 가죠. K/DA 멤버는 누구누구입니까?

- A. 카이사, 이블린, 아칼리, 아리
- B. 카이사, 이블린, 아칼리, 아이번
- C. 카이사, 이블린, 아칼리, 렉스

2. K/DA가 발표한 첫 번째 곡 제목은?

- A. LEGENDS NEVER DIE
- B. POP/STARS
- C. AWAKEN

3. K/DA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는?

- A. 당연히 카이사!
- B. 지금 아리 무시하나요?
- C. 아칼리 무대를 보긴 했어요?

4. 2018년 K/DA가 데뷔 라이브 공연을 했던 나라는?

- A. 중국
- B. 대한민국
- C. 일본

5. K/DA에 합류한 순서대로 멤버를 맞게 나열한 것은?

- A. 아리, 이블린, 카이사, 아칼리
- B. 아리, 이블린, 아칼리, 카이사
- C. 이블린, 아칼리, 카이사, 렉스

6. 2019년 LPL 결승전에서 깜짝 솔로 공연과 인터뷰를 진행한 멤버는?

- A. 이블린
- B. 아칼리
- C. 카이사

7. 뉴욕에 있는 카이사의 댄스 스튜디오 이름은?

- A. 에볼루션 스튜디오
- B. 코쿤
- C. 파이어플라이 컬렉티브

8. 세라핀을 발굴한 멤버는?

- A. 아리
- B. 이블린
- C. 아칼리

정답 1A, 2B, 3A, 4B, 5A, 6B, 7C, 8B

0~3점

아니,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광팬은 아니신가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매거진을 살살이 읽으면 점수가 쑥쑥 올라갈 거예요.

4~6점

네, 좋습니다. K/DA를 잘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틀린 문제를 짚어보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세요!

7~8점

기립박수 대단해요! 진정한 K/DA 팬이시군요. BLADE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홍보용 매거진, 무료 배포, 판매 금지



WITH BECKY G
KEKE PALMER
SOYEON
DUCK
THU

WANT

ADIS (B) I-DLE

LE BEA MILLER

KDA

